

# 지스트, '앤트맨' 최재천 교수 특강 개최

- 5월 3일(수) 초청... <다윈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 주제로 강연 개최



▲ 최재천 교수가 특별초청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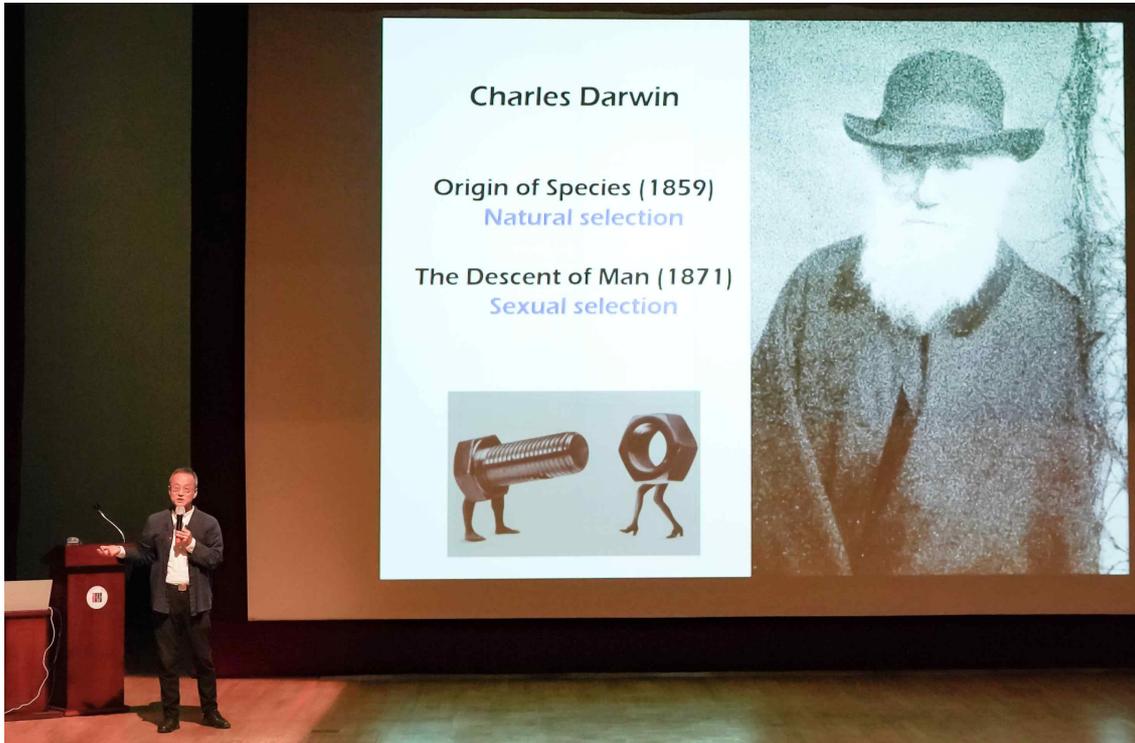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가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前국립생태원장)**를 초청해 <다윈의 어깨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주제로 특별초청강연을 개최했다.

개미 연구로 '앤트맨'이란 별명을 얻은 최 교수는 **5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구자다. 진화생물학과 생태학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다윈의 사도들」, 「다윈지능」, 「과학자의 서재」 등 왕성한 집필 활동으로 진화생물학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렸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국민훈장 동백장, 2023년 청암교육상 등을 수상했다.

대외협력팀과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가 주최하고 '우주환경활용 의생명과학기반기술 연구 융합클러스터(클러스터장 생명과학부 조경래 교수)'가 주관한 이날 특강은 3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일(수) 지스트 행정동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 교수는 강연에서 **다윈의 진화론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윈의 진화론을 토대로 현재 사회에 닥친 **금융위기, 학문의 위기, 환경의 위기** 등을 극복할 방법을 제안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진화론 없이는 생물학의 어떤 것도 이해될 수 없다고 한 진화생물학자 도브잔스키의 말을 응용해 현대사회에서는 “진화의 관점을 떠나서는 삶의 어떤 것도 이해될 수 없다”고 강조해 청중들에게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 최재천 교수가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이 최 교수와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나누며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번 특강을 준비한 조경래 교수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스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전공과 상관없이 과학자로서 진화생물학적 관점으로 인간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가꾸고 기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최재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용 기획처장(대외협력처장 겸무)은 “이번 특별초청 강연을 통해 지스트 구성원과 지역민이 다윈과 진화론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스트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강연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학문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